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때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새 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임

2/16 월

마 5:3

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 66:2

2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굽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눅 6:20

20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19:13-15

13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14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시고

15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신 후, 거기서 떠나가셨다.

갈 6:3

3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 15:5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 57:15

15 높고 드높으신 분, 영원 안에 거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는 이와 겸허한 영을 지닌 이들과 함께 거하여 겸허한 이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이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히 1:9

9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왕께 큰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의 동반자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7 화

눅 1:53

53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였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빌 3:13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시 81:10

10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 주리라.

수 7:3-4

3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올라갈 필요는 없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원수의 수가 적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에서 고생시키지는 마십시오.”

4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약 삼천 명이 그곳에 올라갔으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롬 8:28-29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눅 18:17

17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 139:17

17 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제게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2/18 수**마 5:8**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마 13:19-23

19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20 또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 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22 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 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거둡니다.”

고후 2:10

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고후 3:16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 6:5

5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음이라!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यो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보았음이라!”

2/19 목**시 119:140**

140 주님의 말씀은 지극히 순수하니 이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딤후 4:15

15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고 그러한 일들에 투신하여,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잠 4:23

23 늘 깨어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 4:17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시 12:6

6 여호와와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니 흙도 가니에서 제련되어 일곱 번 정련된 은과 같습니다.

요 17:17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2/20 금**고후 4:16-18**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롬 6:4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7:6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낱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시 91:1

1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눅 1:78-79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잠 4:18

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삿 5:31

31 오, 여호와님! 주님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멸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 있게 돋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후로 그 땅은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다.

2/21 토**마 26:29**

29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시 119:105, 130

105 ㅅ (눈)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130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엡 4:3-4, 17-18, 23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18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22 주일**롬 14:17**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 11:2-3

2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께서 머무시리니 곧 지혜와 명철의 영 조언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3 그분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도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도 않으시리라.

눅 14:26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혼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빌 3:7-8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고후 4:10-12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